

休

글. 위영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달력으로 읽는 세상(2)

-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896년 1월 1일, 조선 사람들은 그 이전과 다른 새 아침을 맞았다. 바로 양력이라는 낯선 시간과 동거가 시작됐다. 갑오년과 을미년의 정신없는 난리를 거친 조선 사람들은 졸지에 태양력(太陽曆)이라는 서양 시간에 편입됨으로써 또 하나의 혼돈에 마주했다. 이 글은 양력 도입 120년을 맞아 「달력으로 읽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전통시대 역사와 근대 이후 달력을 다룬다. 먼저 지난 봄호(34호)에서는 「역사, 전통시대 삶의 디자이너」를, 이번 여름호(35호)에서는 「달력, 근대의 시간 속으로」를 연재한다.



●● 광무 7년 명시력의 한 해 개요, 1903년(©국립민속박물관)

음력 위주의 월별 대소(大小)와 절기(節氣)의 날짜와 시각이 기록돼 있으며, 1903년 1년 전체 일수는 윤월이 들어 있어 383일로 돼 있다.

## 달력, 근대의 시간 속으로

120년 전, 조선왕조는 근대화의 물결에 휩싸인다. 정부는 서양의 근대적 기술과 지식을 근대화의 근간으로 파악해, 새로운 문물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태양력에 기준한 새로운 달력의 도입도 근대 문명 수용의 일환이었다. 고종(高宗)은 1896년부터 전통적 달력을 청산하고 태양력을 쓰도록 권장했다. 다음은 1895년에 반포된 「태양력(太陽曆)을 용(用)하는 건(建)」과 순종 즉위년(1907) 태양력 사용을 강조한 내용이다.

三統의 朔日을 교대로 쓰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정한 것이니 正朔을 고쳐 太陽曆을 쓰되 開國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을 삼으라(『高宗實錄』 고종 32년 9월 9일).

국가의 正朔은 이미 태양력을 준수하여 쓰고 있습니다. 元旦에 朝賀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하니 陰曆 원단과 동지에 조하하는 의식은 이제부터 하지 않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純宗實錄』 순종 즉위년 12월 20일).

1896년 1월 1일

太陽曆

밀려오는 서양 문물은 시간관념의 변화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는 전통적 태음력시스템에서 벗어나 태양력으로 전환을 공식화했다. 태양력에 따라 1895년 11월 16일 다음날은 1896년 1월 1일로 됐다. 물론 태양력의 도입으로 전통적 시간관념이 순식간에 일소(一掃)된 것은 아니었다. 순종 즉위년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음력의 신년의례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력이 적용된 곳은 주로 근대 학교·교통 기관·관공서 등이었다.<sup>1)</sup> 이러한 점은 양력의 공식적인 수용 이후에도 음력이 공존하는 이중력(二重曆)의 형태가 지속되었던 점을 말해준다. 이처럼 양력이 전격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음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한 것은 왜일까? 다음은 1896년에 공포된 「各種 祭祀를 다시 舊曆·舊式에 따라 施行하는 件」의 내용이다.

국가에 있어서 祀典은 더없이 엄하고 더없이 공경스러운 것인데 그때 內閣의 逆臣이 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멋대로 줄인 것부터가 이미 더없이 통탄스럽다. 더구나 새 曆書와 옛 역사에는 원래 날짜가 차이나니 조심스럽고 신중히 하는 도리로 보아 더더욱 미안하다. 이제부터 宗廟와 殿宮, 각 陵園에 지내는 제사는 일체 옛 법대로 하며 일체 大祀, 中祀, 小祀의 날짜는 모두 옛 역사의 날짜대로 하라(『高宗實錄』 고종 33년 7월 24일).

궁내부대신 이재순이 각 殿과 宮의 誕辰月日은 이제부터 시작하여 음력으로 하되 내년 도 새 曆書에 밝혀 놓을 데 대한 사항을 써서 제의하니 승인하였다(만수성절은 임자년 7월 25일, 왕태후 경절은 신묘년 1월 22일, 왕태자의 천주경절은 갑술년 2월 8일, 왕태자비의 탄신일은 임신년 10월 20일)(『高宗實錄』 고종 33년 8월 21일).

태양력이 도입됐으나 전통적 국가적 의례와 행사를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미온적 태도가 보인다. 당시 조선에서 양력을 하루속히 정착시켜 세상의 물정을 알아내는 근대화의 중요한 척도로 그 자리를 넓혀가지만, 양력은 독보적 위치를 점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오히려 음력에 토대를 둔 국가경축일을 굳건히 지키자는 주장은 양력의 힘을 무색하게 만든다. 나아가 양력의 도입이 역신(逆臣)이 제멋대로 추진했던 사안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음력을 지키는 것이 국왕의 위상강화로 이어진 양상이었다.<sup>2)</sup> 물론 이 시기 달력에는 음력에 주안을 두되 양력과 요일(曜日)을 부기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국가의 의도적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통적 시간관념 속에 근대적 시간과 시계의 관념이 파고드는 이중적 달력이 통용되는 세상이었다. 역사의 편찬에서도 그러한 점이 보인다. 1896년 태양력 채택 결과 학부관상소(學部觀象所)에서 2종류의 역서를 편찬해서 보급했다. 하나는 태음태양력서인 시헌력 혹은 명시력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력서이다. 태양력서

주

1) 양력의 공간적 확산에 기여를 한 것으로 신문이 주목받고 있다. 관공서나 학교, 교통 등은 장소의 국소성으로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 등은 공간적 범위의 최대치를 표시한다는 것이다(박태호, 『독립신문』에서 근대적 시간-기계의 작동양상,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5, 259쪽).

2) 임현수, 「한국 근대초기 음양 이중력의 형성과 의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 2005, 70쪽.

와 함께 1896~7년까지 2년간은 시헌력이, 1898~1908년간까지 11년간은 명시력이 간행되었다. 다음은 명시력의 반포에 대한 내용이다.

조령을 내리기를 지난 역사를 살펴보건대 역사의 정책을 매우 중시하였으니, 이는 삼가 하늘의 운행을 관찰하여 그 때를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역사의 명칭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의정, 태학사, 학부대신, 장례원 당상이 두로 상고하여 의정하도록 하라(『승정원일기』 광무 원년 정유 11월 초 6일). 역사의 명칭을 명시(明時)와 일원(一元)으로 정하여 들여보 내니, ... 명시 두 자로 역사의 이름을 삼았다(『승정원일기』 광무 원년 정유 11월 초 7일).

1897년 광무 원년에 고종은 황제로 등극하면서 전통적 달력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선 후기 시헌력은 황제가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이를 제민에게 알려주는 체계였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고종은 곧바로 역사의 명칭을 '명시'로 바꾸었던 것도 다름 아닌 역사의 반포가 황제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정치적 통치행위로 파악된다. 그래서 명시력에도 음력을 중심으로 하되 양력이 부속된 것처럼 부기되어 있다. 이른바 공존과 병행의 이원적 구조는 시간 질서의 갈등과 혼재를 말해준다.<sup>3)</sup> 한편, 당시 대표적 언론이었던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은 양력 기준에 따르자는 근대화의 기수였다. 1899년 『독립신문』의 내용으로, 양력을 지켜 신문을 발간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음력 11월 19일은 양력 12월 31일이요 음력 11월 20일은 양력 1월 1일인즉 양력으로 말하면 구세난 다 가고 신세가 오난지라 그런 고로 본사에서 양력으로 신구세를 영송 할차로 금년 양력 12월 30일부터 명년 양력 1월 4일까지 합 5일은 본사 신문을 휴간하여 잠간 정보하였다가 1월 5일(음력 11월 24일)부터 도로 출간할 터이니 우리 신문 보시난 첩 군자난 그리들 아시오(『독립신문』 1898년 1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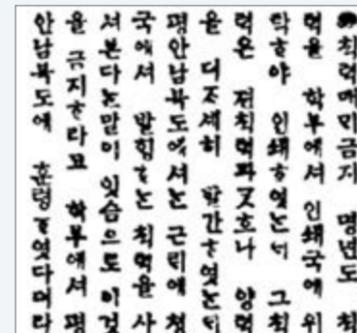
『독립신문』은 1896년 4월에 창간된 신문으로, 논설과 잡보를 통해 근대화를 역설했다. 신문 창간 시기부터 서구열강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력을 누누이 강조했다. 나아가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 등은 양력을 따라지 않고 음력에 과세(過歲)하는 것은 이중과세라 비난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양력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황성신문』의 기사를 보자.

## 주

- 3) 이창익, 「근대적 시간과 일상의 표준화」 『역사비평』, 2002, 410쪽.
- 4)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2011, 37쪽.



● 두 번 과세.  
『독립신문』 1899년 2월 15일(©언론재단)



● 책력 매매금지.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15일(©언론재단)

서양의 유명한 발명과 진보는 모두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좇음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1894년에 신식을 頒下하고 본년 6월 25일 유신하는 정책을 편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개명진보의 실효가 없다(『皇城新聞』 1898년 10월 12일).

我國 皇室의 建元한 光武 大年號가 何等 光大隆尊이완대 光武 年號下 陽曆 年月을 大書特書함이 當당한 標準이어늘 或其公用 文牒과 外國交涉에 약간 用之하고 국가에 신중한 일자와 민간에 恒用하는 年月을 陰曆 某年 某月 某日이라고 苟苟揭書함이 太半에 剛過하니 舊曆 日月을 恒用하는 것이 容或 無怪로되 ... (『皇城新聞』 1901년 4월 22일).

전통적 시간관념이 뿌리 깊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허물 수는 없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음력과 양력을 혼용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며, 대중들은 전통적 시간이 담았던 상징과 질서 등에 쉽게 수용하지 못했다. 우리의 역법은 하늘관·인간관·미래관 등이 투영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과 각종 재앙은 단순한 객관적 자연이 아니라 주관적 자연이자 인간의 행동까지도 통제하는 의미를 지녔다.

한편, 서양의 양력은 자연의 흐름을 객관적 분석대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과학적 관찰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양력은 시간의 균질성, 기계적 시간, 양(量)이나 수(數)로 환원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아가 모든 부분에서 시간에는 어떤 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sup>4)</sup>

근대적 요소들과 함께 소개된 양력은 사회적인 규율이자 원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통적 시간 개념의 변화는 물론이고 의례, 사고방식, 시간을 보는 척도 등 균질적이고 일률적인 시간으로 포섭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화기에 제작된 역사에 소개된 요일(曜日)의 주기와 시간의 균일화가 그것이다. 아울러 음력을 기준으로 제작된 시헌력과 명시력에는 양력 날짜와 요일이 부기됐다. 1896년부터 제작·배포된 달력에는 음력과 양력이 혼용되어 국가 행사와 의례에 반영됐다. 대한제국기(고종~순종)에는 양력과 음력이 공존 또는 이원화된 달력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력의 규정이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된 계기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부터였다. 일제는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강요했으며, 국경일도 그들의 양력 축제일로 바꿔 버렸다. 음력과 세시풍속은 구습, 미신 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파와 제거의 대상이었다. 음력에 근거했던 역사적, 신화적 신념체계와 수많은 경험은 악풍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시간의 구획이 종(縱)으로 뚫힌 횡(橫)으로 뚫힌 다양한 집단적 참여와 기억을 공유할 때, 시간은 공간과 함께 의미 있는 의례와 행사는 자기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의례는 집단 혹은 나라 구성원의 자기 존재와 결집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구심력이 의례와 행사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근대적 공간-공동체의 장소-은 양력의 확산에 일조한다. 학교는 경쟁과 경합의 작은 사회로, 관공서나 직장은 시간의 신이 규정한 대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곳으로 바뀐다. 나아가 열차 시간표, 학교 시간표, 우체시간표뿐만 아니라 관공서 높은 곳에 달려있던 시간장치였던 시계도 균일된 시간으로 대중들을 은연중에 포섭했다. 이들 시간표는 양력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며, 암묵적 동의와 강제였다.<sup>5)</sup> 다음은 『독립신문』에 소개된 우체시간표와 영어학교 학칙 일부이다.

모이는 시간 오전 7시 10시 오후 1시 4시 전하는 시간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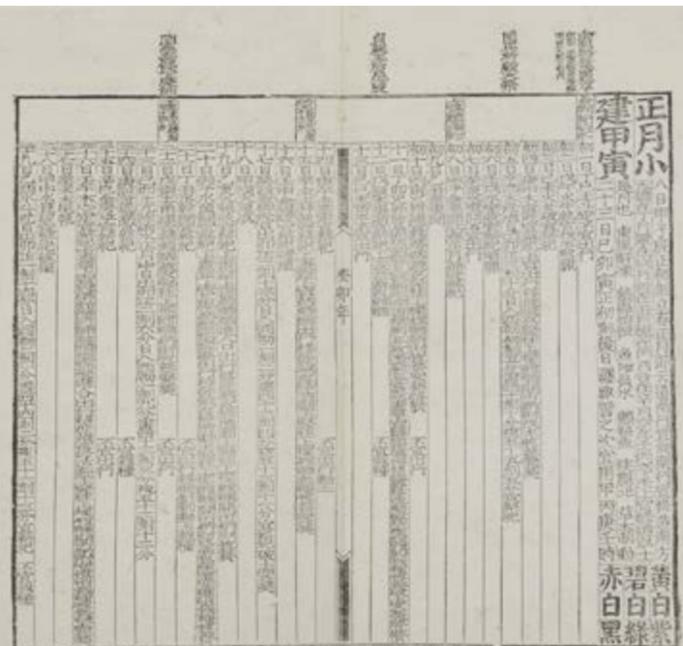
한성 인천 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5시 30분

한성 개성 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2시 30분

한성 수원 공주 전주 남원 나주 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3시

한성 충주 안동 대구 동래 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3시(『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영어학교에서 학도의 공부하는 시간을 매일 오전 9시로 정하고 만일 늦게 오는 학도가 있으며 매 명에 10전씩 물리고 혹 무고히 올 날을 아니 오는 학도가 있으면 매 명에 벌금 15전씩 물리는 고로 형세 구차한 학도들은 매우 감당키 어렵다고 하나 학교에 규칙이 엄하여야 학도들이 마음을 게을리 아니 먹고 정한 시간 안에 진즉들 다닐 터이니 영어교사 헐치신씨의 학교에 규칙을 이렇듯이 엄히 세운 일은 공부에 유익할 터이니 매우 치사할 만하더라. (『독립신문』 1897년 1월 3일)



●● 광무 7년 명시력 정월 역면(曆面), 1903년(©국립민속박물관)

정월은 29일로 일진(日辰)은 갑인이다. 상단에는 경축절(제사일과 제향일), 초하루, 상현·망·하현 등이 기재돼 있으며, 날별로 행위와 방향 역주(曆註)가 수록돼 있다. 참고로 12일의 낮과 밤의 길이를 보면 낮이 58각, 밤이 38각으로 하루는 96각이었다. 전통 역사와 다른 점은 왕실의 행사와 경축일, 양력 날짜와 요일이 부기한 내용이다.

주

- 5) 박태호, 앞의 글, 2005, 286쪽.
- 6) 박태호, 위의 글, 2005, 287쪽.
- 7)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국회도서관, 1971, 438쪽.

우체시간표는 시간의 균질화를 추구한다. 지금과 내일도 똑 같이 적용함으로써, 일반 대중은 양력에 기준한 시간에 맞춘 우체시간표를 준수해야만 한다는 원칙이었다.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시설과 통신 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태도,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기준 등을 지켜야 근대의 시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적 시간개념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 행동하고 이에 따라 반복해야만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예정된 미래도 시간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sup>6)</sup> 그리고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신문을 보면, 학교 규칙인 상학(上學)시간을 태만히 했던 교사나 학생들에게 벌칙이 가해졌다. 나아가 신문 논설에서는 '시간은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 주장을 펴면서 조선 대중들의 나태함과 게으른 생활을 비판했다. 의무와 행동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시간에 비취 조선 대중들의 나태함을 해석하는 선명한 표현은 시간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공동체 생활의 공간, 시간을 통해 인간을 맺고 연결시켰던 전통적 시간개념은 탈각(脫却) 또는 변용에 직면한다.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된 조선의 미래를 달성하려면 개인의 행동과 생활방식은 시간에 대한 의무와 규칙, 심지어 벌금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근대적 시간은 동시성의 공간인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를 비판하는 무기이자 미래에 비추어 현재를 진단하는 무기로 작동했다.

한편, 달력을 근간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요일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휴일, 근무일, 근무시간 등이 달력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일을 표기한 것은 1895년 4월 내각기록국(內閣記錄局)에서 발간한 『관보』이다. 여기에는 "개국 504년 4월 1일 목요(木曜)"라고 표기됐다. 개항 이후 요일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교회의 교칙 등에 기록됐으나 이를 준수하거나 조선 정부가 국가 표준으로 공인(公認)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관보』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교과서 등에도 요일이 표기되면서 양력과 함께 익숙한 개념으로 뿌리내리게 된다. 다음은 1895년 윤 5월 12일, 각령 제7호로 정해진 관청 집무시간 규정이다.

開國 504年 閏 5월 10일

제1조 각 관청의 집무시한은 左와 같이 定함

穀雨로부터 小暑 전일까지는 오전 9시로 오후 3시까지, 小暑로부터 白露 전일까지는 오전 8시로 정오 12시까지, 白露로부터 穀雨 전일까지는 오전 10시로 오후 4시까지

제2조 左開 한 일은 休暇로 함

開國紀元節 7월 16일, 大君主誕辰 7월 25일, 誓告日 12월 12일, 除夕前日로 正朔 3일까지

제3조 소서로 백로까지는 職務上 無妨한즉 本屬 長官은 其僚屬에 휴가를 與함을 得함

제4조 일요일은 全日 휴가로 作하고 토요일은 正午 12시부터 휴가를 作함<sup>7)</sup>

## 주

8) 김왕배, 앞의 책, 2011, 38~39쪽.

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의 집무시간을 정하여 시행하였다(3월 11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오후 1시에 마친다.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오후 1시에 마친다. 7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로 한다.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오후 1시에 마친다.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0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오후 1시에 마친다)(『純宗實錄』 1910년 12월 12일).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5년의 간극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인 절기의 개념이 없어진 것이다.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전통적인 시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규정은 관공서와 학교, 모든 직장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시간은 생활의 규제의 하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전통적 순환질서의 시간관념은 직선적인 시간에 편입되었고, 전통 절기는 하나의 속절(俗節)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집무시간은 양력과 전통적 절기의 대비에서 양력의 위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중들이 양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개물은 달력이었다. 달력에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 해, 달, 요일, 날짜가 표기되어 있어 시간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처럼 1년의 범주를 하루 단위로 쪼갠 것이 달력이었다면, 하루를 시간·분·초 단위로 나눈 것은 바로 시계였다. 최첨단의 서양 문물은 조선의 고유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면서 근대문물의 첨병역할을 하였다. 시간과 공간은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탈각(脫却)돼 그 자체로서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을 획득했다. 시간과 공간은 사회적 관계나 구조와 무관한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인식됐다. 생산수단,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 자체를 상대화시켰던 것이다.<sup>8)</sup>

달력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했으며,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읽는 독자가 오늘이 달과 요일,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언론사에서 달력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독립신문』의 광고이다.

건양 이년 언문 달력, 날마다 한 장씩 너러 잡고 외국 명일들 다 밝게 말한 거시니 갑슨 심오 전 대정동 빈통의원 집에 와서 사 가시오(『독립신문』 1896년 12월 22일).

광무 이년 음양 력서를 벽에 걸어두고 보게 만드러난대 보기가 매우 경편하고 긴요한지라 한권 갑시 십륙전식이니 누구던지 이 음양력을 사셔 보시리들은 독립신문사로 오시오(『독립신문』 1897년 1월 8일).

“개항장에 양력과 일요일 등이 생활의 하나로 정착했으며, 1880년대 서구열강과의 조약, 근대적 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교섭이 넓어진 공간에서 외국과의 공식적 교섭은 양력의 시간으로 그 기준이 점차 변화해 갔다.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과 유사한 달력이 제작됐다. 언문으로 작성한 달력을 벽에 걸어두고 한 장씩 넘겨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는 음력과 양력을 병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달력을 본다는 시선은 균일적 시간배분을 토대로 한다. 달력에 수록된 일요일은 노동과 생산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나아가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노동과 휴식, 학교, 교통, 통신 등에서 전통

적 질서와 확연하게 다른 시간구조였다. 조선사회에서는 개항을 전후해서 양력과 요일을 경험했다. 1876년 개항되면서 개항장에 양력과 일요일 등이 생활의 하나로 정착했으며, 1880년대 서구열강과의 조약, 근대적 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교섭이 넓어진 공간에서 외국과의 공식적 교섭은 양력의 시간으로 그 기준이 점차 변화해 갔다.

일제(日帝)는 음력을 미신(迷信)의 습속으로 간주하면서, 음력을 양력으로 대체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명절인데, 새해 첫날-설날-을 양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론과 관공서를 통해 줄기차게 강요했다. 물론 국경일은 일본의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기준은 양력이었다. 그렇다고 음력의 전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관공서와 학교, 백화점, 교통 등 근대적 편의시설은 양력을 기축(基軸)으로 해 움직였으며, 개인의 점복·제사·이사나 각종 택일 등은 음력으로 살아남았다. 음력이 미신이자 구습이라는 인식은 광복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설날을 두고 오랜 논쟁은 1980년대 가서야 민속의 날, 설날로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

개화의 파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 속으로 조선사회의 일상까지 파고들었다. 양력의 수용이 서구열강의 선물인 것처럼 근대 ‘따라잡기’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음력 질서는 구습으로 여겨졌다. 물론 일순간에 음력에서 양력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력의 채용은 보는 것, 읽는 것, 일상생활 등 다양한 행위의 조각에서 음력을 배제시키고 근대 문화의 하나로 지위를 획득해 나갔다. 언론의 광고, 학교 시간표, 우편물 시간표, 열차 시간표, 관청의 벽시계, 손목시계 등은 근대로 진입해 가는 조선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지난 120년 양력이 도입된 이후 우리는 순환적 시간과 직선적 시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하루하루에 하늘이 부여한 의미와 자연의 순환으로 먹고, 자는 것을 혜택으로 알고 살았던 우리는 과거-현재-미래까지도 전망해야 하는 부담을 안으며 살고 있다.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통해 천문 역법을 읽었던 지혜가 결코 미신이 아니듯, 양력도 자연을 근거로 해 수 천년의 과학적 지식이 투영된 결과다.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과학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달력, 문화의 지층**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서 달력은 너무 흔하다. 우리 달력은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양력과 음력이 병존한다. 왜색 달력 일소, 달력 강매 등으로 달력이 선물의 기능을 하거나 사회 정체성 훼손으로 비화된 적도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달력은 일상에서 낯설지 않은 친근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다양한 색채로 디자인된 흑백과 컬러 달력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회사 홍보달력, 국회의원의 달력, 농사달력, 관공서의 홍보 달력 등 수 없이 많았다. 달력은 단순히 한 해와 달, 날짜의 균질적 배치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달력 제작 주체의 주장, 홍보, 미래를 암축적으로 표현해 동시대 사람을 포섭하는 역할도 했다.

또한 달력에는 국가의 기념일과 공휴일, 가족의 크고 작은 행사, 약속, 방학과 개학, 휴가일 등 일상의 만물상(萬物相)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오늘날 우리와 세계는 달력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하다. 과거 특정 날짜와 먼 미래의 날짜까지도 우리는 달력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아날로그 시대, 달력은 생활과 의례, 행사 등의 지침서의 역할을 해 왔다. 같은 아날로그는 양력으로 바뀌면서 직선적 시간으로 포문을 열었다. 순환의 시간이자 매일매일 달랐던 시간 질서는 균질화됐고 전통시간을 과거의 습속이라 해 옆으로 밀어냈다. 양력 달력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관념의 변화를 이끌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 달력은 개인과 역사, 사회의 복잡한 스토리와 맥락을 담고 있는 매체이다. 어느 누구도 달력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인도에

“오늘날 우리와 세계는 달력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하다. 과거 특정 날짜와 먼 미래의 날짜까지도 우리는 달력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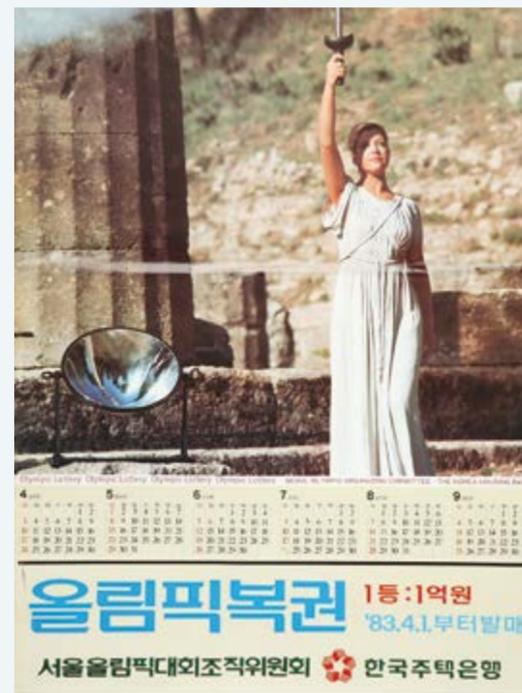


●● 달력, 1946년(©국립민속박물관)

달력에는 달력 제작자가 강조하는 구호 또는 표어, 절기, 서력기원과 단기, 요일과 해당일 등이 집약되어 있다.



●● 정유년 달력, 1977년(©국립민속박물관)



●● 복권 달력, 1983년(©국립민속박물관)

표류한 로빈슨이 날짜를 나무에 새긴 것을 보면, 인간에 내장된 기억에는 달력이라는 DNA가 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달력 제작의 근원이 되는 태양, 달, 지구는 태초 이래로 변함없는 자연의 일환으로 존재한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의 질서화하고 공간적으로 확장한 것은 인간의 행위 결과이다.

달력에 기록된 일상적 내용들은 사람들의 기억을 담고 있다. 행위 주체인 농부는 농사의 내용을, 직장인은 월급날의 씬씬이를, 학생들은 시험과 약속시간을, 어머니들은 장날의 구입 품목을 적어 일상을 기억했다. 오늘날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균질적인 날들 가운데 하루를 살지만, 과거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에서 시간과 공간의 연결고리를 지키며 살고 있다.

달력은 예나 지금이나 기억을 들추게 하는 저장 공간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오래된 시간일 뿐이며, 시간과 공간의 고리가 느슨해져 우리와 멀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달력은 장기 지속의 시간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양력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전통시대 생활의 지침서였던 음력,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양력은 공존하며 우리의 시간을 지탱해 주고 있다. 양력과 음력의 갈등, 저항, 수용, 병존 등의 역사적·문화적 흐름은 단절성과 지속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 시간의 길에 우리 자신의 역사도 어디엔가 남아 있어 돌아볼 수 있다.

필자 소개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에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